

한지 찢고 붙인 추상미술 파노라마...권영우 개인전

December 22, 2021 | 이한나 기자

Page 1 of 5



권영우, Untitled, 1982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한지를 찢고 뜯고 붙였을 뿐인데도 차분한 아름다움이 번져 나온다. 전통 한지의 다양한 물성 실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대표적 단색화 작가 고 권영우(1926~2013)의 개인전이 내년 1월 30일까지 국제갤러리 K2공간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개인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만 세 번째 전시다. 올해 5월 유럽 대표 미술관인 파리 퐁피두센터가 단색화거장 박서보·하종현 작품과 함께 영구소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금 주목받은 해방 1세대 작가다.



권영우, Untitled, c.200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파리 시기(1978~1989)에 해당하는 백색 한지 작품은 물론 1989년 귀국 직후의 색채 한지 작품 25점을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끈다. '무제'(47 x 74 cm) 연작처럼 한지 위에 서양의 불투명 수채물감인 과슈와 동양의 먹을 혼합해 사용하니 독특한 검정색 채색이 얇은 베일처럼 겹치면서 미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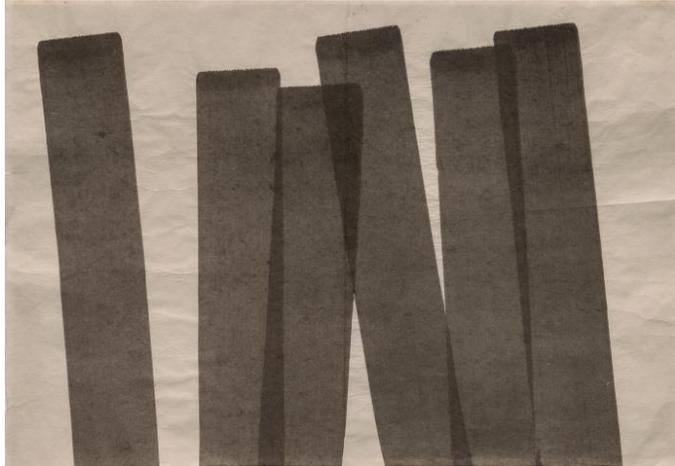
평생 종이 실험을 계속 이어나간 작가가 나무 패널에 얇고 투명하면서도 질긴 화선지를 겹쳐 발라 기하학적 형상을 얇은 입체로 표현한 2000년대 이후작들도 이번에 10점 선보였다.



권영우, Untitled, c.198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권영우 작가는 동양화에서 출발했으나 일본 화풍을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 속에서 전후 서양의 추상을 수용한 점에서 선도적인 화가로 발돋움했다. 초기에는 한국화 기본 재료인 수묵으로 필선이 강조된 구상적 표현을 탐구했지만, 1962년 이후 주요 재료 중에서 붓과 먹을 아예 버리고 종이(한지)만 취하는 파격을 택한 것이다. 지금이야 박서보·윤형근·정상화 등 서양화가에서 출발한 단색화가들의 한지 활용이 흔해졌지만 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참신한 시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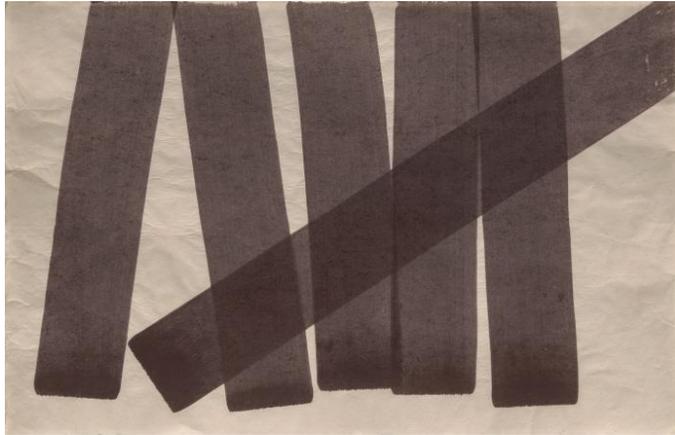
우리의 뛰어난 전통 문화유산인 한지로 차별화된 미감을 표현하면서도 전후 추상미술을 이끈 조르주 브라크나 루치오 폰타나 등 서구적인 조형방법도 떠올리게 한다. 현대미술 주류와 연결되면서도 독창적인 아시아적 미학을 갖춘 셈이다. 특히 작품의 보관 상태가 뛰어나 우리나라 전통 제지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생긴다.



권영우, Untitled, c.198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그는 스스로 "나의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도구로 동원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권영우는 1946년 서울대 미대 첫 입학생으로 동양화를 전공했고, 1957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4~1978년 중앙대 예술대 교수로 안정적 지위를 얻었으나 작품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1978~1989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 후 10여 년 동안 체류했다. 이때 작품이 정제된 완성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겹 겹쳐진 한지의 섬세한 재질감을 강조하면서 종이 위에서 입체감과 리듬으로 조형성을 구성했고, 동양화의 매체를 재조명해서 그 영역을 초월한 새로운 문법으로 인정받았다.



권영우, Untitled, c.1980s [사진 제공 = 국제갤러리]

그는 사후에도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 '단색화'에 참여했고, 주요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